

화순 프라운호퍼연구소 건립 중단

독일과 운영권 마찰...설립 무산 위기 생물·백신 특화단지 조성 차질 우려

생물 의약·백신 산업의 전진기지로 기대를 모았던 화순 '프라운호퍼 한국 연구소'(분자생물연구소) 건립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독일의 세계적 연구기관 프라운호퍼의 한국 연구소를 화순에 유치해 국제 합작연구로 의약·백신 상품을 만드는 이 사업은 소장 선임 등 운영권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건립이 중단된 상태다. 해당 연구기관에 인사와 운영 등 전권을 주는 해외 연구소의 특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벌어진 일이다.

전남도는 15일 "최근 독일 프라운호퍼 측이 연구소 건립에 난색을 표명해 사업이 일단 중단됐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영 전남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총 372억원(국비 265억원·지방비 62억원·프라운호퍼 45억원)을 투자해 연구동(5000㎡)과 실험장비 등을 구축, 화순을 생물의약과 백신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국고 12억원을 들여 연구장비 일부 구입했고, 올해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연구 전문가 13명 등 연구소 직원 15명을 채용,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임시건물에서 연구에 착수했다.

하지만 양국의 문화적 차이가 연구소 건립에 걸림돌이 됐다. 프라운호퍼 측은 '아무리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연구소 내부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법'이라며 운영권·인사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화순 임시 프라운호퍼 연구시설에는 독일인 연구 인력은 한 명도 없고, 합작 연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예산 지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도는 '연구 소장으로 한국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국내 관행상 상급기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며 맞서

고 있다.

프라운호퍼 관계자는 "이런 상태로는 연구소 건립을 추진할 수 없어 건립을 미루고, 기초 연구 교류부터 시작하자는 방안을 교과부에 제출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장기적 교류를 통해 연구소 건립을 재검토하자는 제안으로, 사실상 연구

소 건립을 취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교과부가 지원하고 있는 독일 막스플랑크 재단의 포항연구소 설립은 차질없이 진행돼 전남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포항과 막스플랑크 재단은 앞으로 5년간 357억원을 투입해 복합물분분야 등 2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포항연구소의 경우 막스플랑크 연구진과 포스텍(포항공대) 교수들이 수년 전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프라운호퍼와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자체 연구를 하거나 새로운 해외 연구재단과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프라운호퍼=지난 1949년 설립돼 독일 내 본사와 세계 각국에 총 80개 연구기관을 설치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세계적인 연구소. 전남이 유치하려고 한 분야는 신종플루, 호흡기 감염백신, 말라리아 등 백신 분야 신기술 연구였다.



영광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15일 영광군 흥농을 원전 정문 앞에서 주민과 반핵·환경단체 회원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군민결의대회를 열고 원전 가동 중지와 안전성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영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광원전 가동 중지하고 안전 보장하라”

주민 2500명 결의대회

최근 잇단 고장도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광원자력발전소 앞에서 15일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영광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영광원전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주민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어 원전 가동 중지와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영광원전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은 2005년 원전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당시 집회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영광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인근 전북 고창 주민들까지 가세했으며 전국적 반핵·환경단체 회원들도 참가했다.

행사장 주변에는 '불안해서 못살겠다', '한수원 사장은 영광군민 앞에 석고대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

카드와 피켓이 빼곡히 내걸렸고 참석자들은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둘렀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원전정착을 재수립하고 가동 중인 영광원전의 가동 중지와 안전성 확보를 촉구한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사과, 국제적 수준의 안전점검, 원자력 안전위원회 해체, 군의회 등의 후 발전 재개 등을 요구했다.

이어 나승만 영광군의회회장을 비롯한 대책위 공동위원장 4명이 영광원전을 방문, 김대경 영광원전 본부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한 뒤 '원자력 안전위원회 해체'가 쓰인 현수막을 허수아비에 달아 화형식을 집행했다.

한편 결의대회 후 대책위가 영광원전 정문 앞에 흥농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설치해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영광=조익성기자 ischo@

알림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풀코스·하프코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출발

최고의 전통, 최상의 코스를 자랑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내년 3월 1일 개최됩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세계만방에 알린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는 광주일보의 3·1절 마라톤은 2013년 제48회 대회를 맞아 호남은 물론 전국 마라톤러들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열리게 됩니다. 특히 풀코스와 하프코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에서 출발, 영산강변을 따라 승촌보를 반환하여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끝나는 코스로 광주·전남의 상징적인 장소를 모두 경유하는 명품코스로 대회가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는 코스를 최대한 직선화함으로써 도심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광주일보사는 이번 대회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 가족과 직장, 동료인원들의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봄의 힘찬 기운이 약동하는 대회를 함께 답답시다.

- 일시: 2013년 3월 1일(금) 08:30~16:00
출발시간 - 풀코스 08시 30분, 하프 08시 40분, 10km 09시 10분, 5km 09시 20분
- 종목: 풀·하프코스=아시아문화전당 출발/광주월드컵경기장 끝
10km·5km=광주월드컵경기장 출발/광주월드컵경기장 끝
- 마감: 2013년 2월 7일(수)
- 문의: http://mara.kjmedia.co.kr (062)220-0541

光州日報社

대형마트 2015년까지 중소도시 출점 자제

SSM은 10만 미만 도시 출점 억제...월 2회 자율 휴무

대형마트가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도시가 없는 전남지역에는 앞으로 3년동안 대형마트가 새로 생겨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서울 팔도호텔에서 홍석우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첫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중소 상인간 상생 방안을 협의했다.

논의 결과, 대형마트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신규 점포 개설을 자제하기로 했다. 기업

형 슈퍼마켓(SSM)은 같은 시기까지 인구 10만 미만 도시의 출점을 스스로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형마트 3사와 SSM 4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한달에 이틀 이내의 의무 휴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 달 16일부터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평일 이틀 휴무를 실시한다. 쇼핑센터 등에 입점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성격을 지닌 점포도 휴무에 동참한다.

대체적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기존에 추진한 점포는 출점 자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불씨가 남았다. 아

직 매장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투자해 입점 계약·점포 등록 등이 이뤄진 곳은 철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역 중소상인 단체들은 "이날 협의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유통 관련 개정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불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용제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를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면서 "심사일에 맞춰 중소상인들이 배제한 채 정부와 대형유통업체가 협의안을 발표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비교할수록 **TOYOTA**
토요타 광주전시장 OPEN 이제 광주에서 비교해 주세요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36개월 무이자 할부
광주전시장 062.371.8383
TOYOTA
Smile for Tomorrow

더 넓은 세상을 보라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600여명의 취재 기자와 전세계 35개국 46개 도시에 파견한 60여명의 해외특파원망을 통해 24시간 생생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로 우리의 소식을 전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